

2019 설 가정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묵상기도 인 도 자
찬 송 94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같 이

1.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족은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못해
2.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대표기도 가족 중
성경봉독 신명기 11:12 인도자와 회중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 씀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인 도 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은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2019년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은 오히려 우리를 희망 고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무슨 힘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은 어려운 새해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모아 놓은 신명기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청중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를 친히 목도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축복보다 먼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보다, 축복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말씀의 전원은 켜져 있는지 기도의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추억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왕년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신앙생활을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초점을 둘 때 추억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추억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금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재중이 아니라 임재중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이 없지만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연초만이 아닌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와 눈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리를 뜨면 부재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새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축복보다 관계가 먼저이고, 추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 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가족소식 인 도 자
가족기도 다 같 이
폐 회 주기도문 다 같 이